

【연구논문】

『오 개척자들!』에 나타난 새로운 여성 정체성의 문제

한미야

(서울대)

윌라 캐더(Willa Cather)의 『오 개척자들!』(*O Pioneers!*)은 서부로의 팽창이 한창이던 19세기 중반 네브라스카(Nebraska)에 이주하여 땅을 인간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한 노력을 기울인 서부 개척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개척자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캐더가 순전히 자신을 위하여 썼다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¹⁾ 캐더의 여러 작품들 중 그녀의 인간관, 사회관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어서 서부 개척 시대에 등장하는 새로운 여성상에 의미 있는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독자는 작품 속 주인공 알렉산드라(Alexandra)의 삶을 따라가면서 19세기 서부 개척시대 이주민들이 어떻게 땅을 경작지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했는지, 땅을 소유하고 경영하게 된 여성 개척자들이 기존의 전통적 여성들과 다르게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키우며 이웃과 관계를 맺어 나갔는지 그리고 이들의 자유와 독립이 공동체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었는지 살펴 볼 수 있다.

이 글은 주인공 알렉산드라의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동시에 관계 지향

1) Willa Cather, *Willa Cather on Writing*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8), 93.

2 한미야

적인 삶에 주목하면서 캐더가 어떻게 당대의 여성에 대한 지배적 형상화, 즉 ‘가정 안의 천사’라는 전통적인 여성상과는 판이한 새로운 여성상을 형상화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알렉산드라는 순종적이고 패배적인 19세기 여성의 스테레오 타입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자신의 가능성과 공동체의 꿈을 실현하고자 노력한다. 그녀는 농장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자신이 이룬 부를 울타리 삼아 소외된 이웃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의 가능성을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알렉산드라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는 서부 여성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에 접근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개척시대 토지 소유 및 생산 활동, 그리고 사회 활동과 여성의 자기 인식 태도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주인공 알렉산드라의 삶을 토지 소유와 공적 영역에서의 생산 활동, 경제적 독립과 자유에 기반 한 공동체와의 기여라는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20세기 초반 공적 생산 활동의 영역에 등장한 여성들이 토지 사유의 문제나 물질만능주의에 기반 한 인간관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이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극복하고자 시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제까지 캐더에 대한 주요 연구 성과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작가의 전기적 사실들을 충실히 기록하며 이에 근거해 그녀의 작품 세계를 평가한 연구 업적들로서, 캐더의 삶과 문학세계에 신세계와 유럽 두 문화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의 측면에서 주목한 우드레스(James Woodress)의 *Willa Cather: a Literary Life*(1987), 캐더의 문학세계를 두 개의 상충하는 힘의 긴장 관계에 두고 서술한 리(Hermione Lee)의 *Willa Cather: Double Lives*(1991), 캐더의 절친한 친구로 작가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하여 캐더의 삶을 기술한 루이스(Edith Lewis)의 *Willa Cather Living*(2000), 그리고 스타우트(Janice P. Stout)의 *Willa Cather: The Writer and Her World*(2000)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캐더가 여성작가로서의 정체성이 작품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인정하며 캐더의 삶과 문학을 전반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두 번째 접근 방법으로, 캐더의 삶과 작품을 기존의 이분법적이고 억압적인 성정체성에 대한 도전과 이러한 억압에서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여 캐더 작품의 여성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새로운 여성상에 주목하는 연구들이다. 대표적 저술로 오브라이언(Sharon O'Brien)은 *Willa Cather: the Emerging Voice*(1987)에서 캐더가 자신에게 부과된 19세기적 여성정체성에 도전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진정한 자기 인식에 이르는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그녀의 문학세계와 연관시켜 분석하였다. 세 번째 1990년대 이후 새롭게 대두된 연구 동향으로 캐더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연구로 캐더 연구의 대가인 로소우스키(Susan J. Rosowski)가 책임 편집한 *Willa Cather's Ecological Imagination* (2003)은 캐더의 문학세계에 대한 생태주의적 연구 성과물을 담고 있다. 이들은 캐더의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등장인물들의 자연 중심적 태도에 주목하면서 억압적인 사회문화로부터 소외되어 온 변방의 가치들에 주목한다.

그간의 연구를 통해, 캐더 작품이 보여주는 새로운 성 정체성의 문제나 생태적 사유의 관점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의 배경이 되는 19세기 서부 개척시대 토지 소유의 문제와 더욱 팽배해 지는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미국화(americanization)의 문제에 대해 캐더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캐더의 작품을 분석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카메론(Scott Cannon Cameron)은 “Owning America: American Literature, Ecocriticism, and the Attempt to Redefine Land Ownership”(2011)에서 캐더 작품에 드러나는 땅의 소유문제에 주목하고는 있지만 그가 주목하는 것은 『오 개척자들!』에 나타난 토지 소유의 문제에 기술력의 문제가 새로이 등장하였음을 지적하는데 머물러 있어, 캐더가 토지 사유에 대해 어떤 비판적인 논의에 이르고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연구에서는

4 한미야

알렉산드라가 대농장의 주인이 됨으로써 유럽의 성주와도 같은 귀족의 역할을 떠맡았다고 평가함으로써 캐더의 지향점을 과거로 회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오 개척자들!』에 나타나는 서부 팽창의 역사를 토지 소유의 문제를 통해 고찰하고 소유의 문제를 인간의 자유와 독립의 문제와 연결시키면서도 이에 그치지 않고 대안적 가치를 꿈꾸었던 캐더의 생각을 고찰해 보는 것은 캐더 작품이 가지는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넘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조화로운 삶의 차원으로 관심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궁극적으로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알렉산드라의 삶을 통해 윌라 캐더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의 모습을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서부로의 팽창과 소유적 개인주의

미국의 독립혁명과 서부로의 팽창 정책을 지지하는 근거가 사유 재산을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인간의 자유와 독립의 근거로 인정하는 소유적 개인주의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작품의 배경이 되는 19세기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소유적 개인주의와 공동체의 문제를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맥퍼슨(C. B. Macpherson)에 의하면 로크(John Locke)로 대표되는 소유적 개인주의 전통에서 인간이란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우며, 사회에 빚지지 않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의 정당한 소유자이고, 자신의 노동력을 사고 팔 수 있는”²⁾ 존재이다. 이처럼 소유권의 개념은 근대 미

2) C. B. Macpherson,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Hobbes to Loc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황경식·강유원 공역, 『홉스와 로크의 사회철학』(서울: 박영사, 1990), 3.

국사회에서 인간의 자유나 개인주의와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자기 확립 (self-constitution) 혹은 개인성과도 관계가 있는 중요한 개념이 된다.³⁾ 소유적 개인주의 관점에서 인간이 만든 사회란 “일련의 매매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사회 속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며, 정치 사회(political society)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유자들의 교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⁴⁾ 철저히 개인을 우선시하는 사회이다. 이처럼 미국이 건국이념으로 받아들인 17세기 개인주의는 인간다운 자유와 독립을 누릴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소유권에 있다고 보았고, 인간은 결국 시장의 법칙에 따라 사회를 이루고 사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소유의 문제를 개인의 독립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 조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간관계는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것이 된다.⁵⁾

개인의 재산 소유가 개인의 자유와 독립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로크의 개인주의 사상은 건국이후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미국인의 의식에 영향을 미쳤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소규모 자작농이 미국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원

3) Margaret Jane Radin, *Reinterpreting Proper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1.

4) Macpherson,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263-64.

5) 개인은 자신의 노동력과 노동력을 이용해 얻은 재화에 대해 사회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소유에 대한 자연권(natural right of property) 사상은 미국 혁명 당시 미국 사회의 공식적 이론이 되었다. “대표 없이는 세금도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라는 혁명의 구호도 개인의 재산은 그 자신이나 그를 대표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는 빼앗아갈 수 없다는 인간의 고유한 소유권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로크의 사상을 계승하는 것이다. 1774년 ‘대륙회의’(Continental Congress)에서도 “자연법에 의하여 (모든 인간은) 삶과 자유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권도 그들의 동의 없이 이를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미국 헌법의 기초가 되는 1789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과 뒤따라 발표된 ‘버지니아 법’(Virginia Bill)과 ‘메사추세츠 법’(Massachusetts Bill of Rights)에도 소유에 대한 자연권 명시됨으로써 미국은 소유권을 자연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소유에 대한 자연권을 인정하는 것이 미국 헌법의 전통이 된 것이다 Richard Schlatter, *Private Property: The History of an Idea*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51), 188-89.

천이며 재산의 독립적이고 평등한 소유가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이 된다고 하였다. 제퍼슨은 농부를 “신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부르며 땅을 직접 경작하는 자연과의 접촉 과정을 통해 민주적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립심과 윤리적 덕성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했고⁶⁾, 이에 더해 제퍼슨은 귀족적 특권이 없는 상태의 ‘자연권이 보장하는 소유’(natural property)를 모든 이들이 누림으로써, 즉 평등한 재산 소유를 누림으로써 미국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⁷⁾ 쿠퍼(James Fenimore Cooper)는 1838년 발표한 『미국 민주주의자』(*The American Democrat*)에서 “소유”가 “모든 문명의 기본”(the base of all civilization)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의 사적 소유가 인간의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⁸⁾ 소로우(Henry David Thoreau) 역시 1849년 발표한 「시민 불복종」(“Resistance to Civil Government”) 말미에서 “정부는 내 몸과 소유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것 외에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⁹⁾고 하여 개인의 소유권이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19세기 중반 이후, 미국 사회가 농업 기술과 교통의 발달, 그리고 시장 규모의 확대로 커다란 성격 변화를 겪지만 이러한 변화가 소유관계에 대한 미국 사회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았다.¹⁰⁾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에 있던 19세기 중·후반에도 개인의 소유에 대한 권리가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땅의 소유가

6) 신문수, 「서론: 자연과 미국 문화」, 『미국의 자연관 변천과 생태의식』(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4.

7) Scott Cannon Cameron, “Owning America: American Literature, Ecocriticism, and the Attempt to Redefine Land Ownership.”(PhD diss., Boston University, 2011), 168.

8) James Fenimore Cooper, *The American Democrat* (New York: Vintage Books, 1956), 133-39.

9) Henry David Thoreau, *Walden and Resistance to Civil Government* (New York: Norton, 1992), 245.

10) Richard Hofstadter, *The Age of Reform* (New York: Vintage, 1955), 38.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존중을 보장한다는 생각은 홈스테드 법 제정 당시 발간된 『당신에게 농장을 주어라』(*Vote Yourself a Farm*)는 제목의 팜플렛에도 잘 나타나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집이 아무리 먼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다른 사람의 집에서 환대받을 것이다. 반면에 집이 없는 가난뱅이는 거절당할 것이다. 단순히 농장을 가질 수 있는 권리만으로도 당신은 수많은 모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니 농장을 갖기 위해 노력하라.

if a man have a house and home of his own, though it be a thousand miles off, he is well received in other people's houses; while the homeless wretch is turned away. The bare right to a farm, ... would save you from many an insult. Therefore, Vote yourself a farm.¹¹⁾

독립적이고 존엄한 인간성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은 소유권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외부 환경의 자원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근면하고 정직한 노동으로 얻을 수 있다는 로크 전통의 자유주의적 논리는 『오 개척자들!』의 배경이 되는 서부 개척지 이주민들의 삶 전반과 여성 정체성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소유권과 정체성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개념이 진실이든 아니든, 이 시대를 산 미국인들이 소유권과 개인의 정체성 문제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고”¹²⁾ 이러한 생각과 그 한계의 극복이 작품 『오 개척자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정체성과 삶의 지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1) Walter Benn Michaels, *The Gold Standard and the Logic of Naturalism: American Literature at the Turn of the Centu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95에서 재인용.

12) Ticien Marie Sassabre, “Reimagining Property: Ownership and Identity in American Fiction, 1880-1940.”(PhD diss., Stanford University, 2001), 8-9.

소설 시작의 시간적 배경은 서부로의 팽창 정책의 교두보가 된 홈스테드 법(Homestead Act 1862) 시행 이후 약 20년이 지난 시점으로, 공간적 배경이 되는 네브라스카 평원에는 국가가 공여하는 토지를 얻기 위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속속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었다.¹³⁾ 1830년에 이미 미 대륙 최초의 철도가 건설되었고, 1869년에 미 대륙 횡단철도가 완성되었으며, 1880년에 이르면 대부분의 간선 철도가 완성되었으니¹⁴⁾ 소설의 배경이 되는 1880년대는 초기 정착민들의 개척지 경작이 그 결과를 맺기 시작하는 때라고 할 수 있다.

홈스테드 법은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고 광활한 미개척 야생의 땅을 개간한다는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탄생하였다. 1862년 링컨 대통령이 홈스테드 법을 승인할 당시 서부 이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땅의 규모는 160 에이커였다.¹⁵⁾ 땅은 1에이커 당 \$1.25에 민족(ethnicity), 성(gender), 경제 수준(economic status)에 상관없이 배분되었다. 땅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 단지 미국의 시민이 될 의사만 표명하면 그만이었다. 홈스테드 법에 의해 땅을 받는다고 해서 곧바

13) 제퍼슨이나 애덤스(John Adams) 같은 정치인들은 비싼 땅값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세습될 수밖에 없었던 유럽과는 달리 미국의 광활한 미개척 땅을 시민들에게 똑같이 무상으로 배분함으로써 신세계에서는 시민들 간의 경제적 평등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경제적으로 평등한 소규모의 토지를 경작하는 농부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이들의 경제적 평등사상은 토지의 평등한 분배를 실행하여 서부 개척의 근간이 되었던 홈스테드 법으로 결실을 맺는다. Cameron, "Owning America," 168.

14) 김윤상·박창수, 『진보와 빈곤 땅은 누구의 것인가』(서울: 살림, 2007), 22-3.

15) 홈스테드 법이 처음에 표방한 경제적 평등정신은 『오 개척자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얼마 안 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입증된다. 서부개척지에서 농부들이 이익을 내며 살려면 적어도 360에서 640에이커 정도의 땅을 소유해야 했다(Roth 105)는 점을 고려할 때 초기 정착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국가로부터 배당받은 땅 그 이상을 확보해야만 했다. 이들은 더 많은 땅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사에 실패하고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의 땅을 사들였다. 작품 초반부에서 농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도시 노동자로 편입되는 린스트림(Linstrum) 가문과 그들의 땅을 사들여 대 농장으로 성장하는 버그슨(Bergson) 가문의 이야기는 초기 정착민들의 엇갈린 운명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로 땅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거주’와 ‘노동’의 약속, 즉 그 땅에 5년 이상 살면서 경작을 해야 하는 조건을 이행해야 비로소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이는 투기꾼들의 사악한 목적의 땅 투기를 막고, 땅에서 살면서 땅을 경작하는 정직한 농부들이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¹⁶⁾

평등의 원칙에 따라 여성도 동등하게 땅을 허락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땅의 소유가 가능해진 서부 개척 시대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 되었으리라는 사실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당시에 동부에서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교사, 간호사, 가정부, 점원 등으로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자유도 미미한 것이었다. 그러나 서부 개척지에서 여성들도 땅을 소유함으로써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가능성은 크게 확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부 개척지는 긴 역사를 통해 인간의 필요대로 잘 길들여진 구세계의 토지와는 달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능한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성(gender)에 따른 노동력의 구분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새롭게 만들었다. 여성들도 집안일 외에 남성들과 함께 동등하게 야외노동을 해야만 했다.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던 공적 영역에서도 노동력을 쏟아 붓고 그 소산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던 서부개척지 여성들은, 집안의 천사로 집안일만을 돌보았던 구세계의 여성들보다 자유롭고 독립된 자아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주인공 알렉산드라의 삶은 이처럼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새로운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알렉산드라의 파격적인 면모는 소설 첫 부분에서부터 드러난다.

개척자들의 마을에서 자란 알렉산드라는 첫 등장 부분에 나타나는 외모부터 19세기의 전통적 여성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녀는 튼튼한 체구에

16) Cameron, “Owning America,” 168.

남성용 모자를 쓰고 빠르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소설에 등장한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에 대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듯 먼 곳에 시선을 고정시킬 뿐 거리의 사람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그 표정은 자못 심각하고 생각에 잠긴 듯하다. 그녀는 모르는 사람의 관심을 끌 만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멋진 머리카락을 칭찬하는 남자어른의 말에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여전사의 눈빛으로 쏘아 볼 뿐이다.¹⁷⁾ 또한 그녀는 언제나 평범한 옷을 입고 모자쓰기를 소홀히 하여 여름이면 붉게 탄 얼굴 모습이다.¹⁸⁾ 이는 수줍음이나 순종과 같은 미덕을 내면화하고 아름다운 외모에 자신의 가치를 거는 19세기 전형적 여성의 모습이 아니다.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자신의 장식적인 가치에 거리를 두면서 미래를 향해 노력하는 씩씩하고 자유로운 청년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단호한 그녀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알렉산드라의 아버지 존 버그슨(John Bergson)은 소설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11년 전인 1872년 경, 즉 홈스테드 법이 제정된 지 10년 쯤 지난 후에 개척지에 도착하였다. 그 해 겨울, 그는 눈보라에 소를 잃고, 이듬해 여름에는 다리가 부러진 자신의 애마를 직접 총으로 쏘 죽여야 했으며 이듬해 여름에는 콜레라로 돼지를 잃고, 소중한 종마를 방울뱀의 독침에 잃는 등 개척민으로서 힘겨운 삶을 이겨내야 했다. 이제 가까스로 빛에서 벗어났지만 그는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는 시점에서 존 버그슨이 가지고 있는 땅은 640에이커이다.¹⁹⁾ 360에이커 이상의 땅을 확보해야 안정된 수입을 누릴 수 있었다는 라스의 앞의 설명을 따른다면 이 정도 규모의 땅은 안정적 이익을 낼 수 있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농장을 일구기에 충분한 규모의 땅을 획득했지만 개

17) Willa Cather, *O Pioneers!* (New York: Norton, 2008), 11.

18) *Ibid.*, 42.

19) 이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땅 320에이커에 시카고로 떠난 형제의 땅 320에이커를 합한 것이다.

척지의 땅은 그가 살아왔던 유럽의 땅과는 성격이 달라 그는 개간에 애를 먹는다. 그를 포함해 서부개척지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 누구도 정착기에 땅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땅을 정복하고자 했으나 수수께끼와도 같은 땅의 개간에 애를 먹을 때 그가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딸 알렉산드리아이다. 알렉산드라는 채 열 두 살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의 농장 경영을 돕기 시작했는데 알렉산드라가 자라날수록 아버지는 알렉산드라의 명민한 직관, 풍부한 지식, 그리고 창조적 에너지에 더욱더 의지해 간다. 알렉산드라가 타고난 예민한 통찰력과 근면한 배움을 통해 아버지에게 훌륭한 조연자가 되었다는 것은 다음의 설명에서도 잘 드러난다.

신문을 읽는 것도, 시장 정세를 좇는 것도, 그리고 이웃의 실패를 통해 배움을 얻는 것도 모두 알렉산드라였다. 소의 여물 비용을 아는 것도, 돼지의 무게를 정확히 어림잡작하는 것도 모두 알렉산드라였다.

It was Alexandra who read the papers and followed the markets, and who learned by the mistakes of neighbors. It was Alexandra who could always tell about what it had cost to fatten each steer, and who could guess the weight of a hog before it went on the scales closer than John Bergson himself.²⁰⁾

이처럼 알렉산드라는 단순한 육체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농업에 대한 지식을 쌓고, 정보를 얻고 주변 인물들의 실수에서 얻은 교훈에서 생긴 지혜로운 조언으로 아버지의 농장 경영을 돕는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시장 논리에 밝았던 알렉산드라는 개척시대의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세 명의 남자 형제들을 제치고 농장을 이어 받는데 이는 남녀를 불문하고 가족과 땅의 미래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엄중한 서부 개척지 환경으로 인해 개척민들이 문명 세계가 고수하

20) Ibid., 17.

고 있는 전통적인 성 역할구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서부 개척민들의 삶은 전통적인 편견에 얽매어 남녀를 차별대우할 만한 여유가 없는, 남녀를 불문하고 누가 되었는지 자연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긴박한 것이었다.²¹⁾

알렉산드라는 당시 중상류층 가정의 딸들이 장식적인 일을 하면서 남성에게 의존하고 순종하는 존재로 자라났던 것과는 달리 가정의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능동적으로 감당하면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정체성을 키울 수 있었다. 주변의 어떤 남성보다도 현명하고 용기 있는 알렉산드라의 면모는 연이은 가뭄으로 마을사람들이 농장을 팔고 도시로 떠나는 위기 상황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신중하면서도 정직하고 한결같은’²²⁾ 훌륭한 성정을 가지고 있고 신문과 책을 많이 읽고 대학에 다니는 젊은이로부터 농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정도로 근면하게 세상을 배워나가는 알렉산드라는 가뭄으로 인해 농장에 위기가 와도 다른 농장주들의 결정에 부화뇌동하지 않는다. 이웃들이 하나 둘 떠나가고 동생 루(Lou)마저도 고집부리지 말고 정착지를 떠날 때를 알아야 한다고 설득하는 상황에서 알렉산드라는 오히려 이웃들이 모두 떠나는 지금이야말로 땅을 사들일 좋은 기회라고 말한다. 알렉산드라는 땅을 확장시키고 자신의 지식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땅을 일구면 그 땅이 언젠가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예측한다.²³⁾ 이는 부지런히 익힌 농업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시장 논리를 읽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알렉산드라의 현실적인 통찰력이 빛을 발하는 장면이다. 알렉산드라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종종

21) 알렉산드라는 소설 속에만 존재하는 새로운 여성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미 서부 개척의 역사에서 많은 여인들이 홈스테드 법을 이용하여 땅을 소유하고 경작하였다. 이들은 알렉산드라처럼 독신에 모험심 많은 신여성들(New Women)이었다. Maire Mullins, “Alexandra’s Dreams: “The Mightiest of All Lovers” in Willa Cather’s ‘O Pioneers!’.” *Great Plains Quarterly* 25 (2005), 148.

22) Cather, *O Pioneers!*, 33.

23) *Ibid.*, 31.

실제보다 더 좋게 보는 인간의 인식적 한계에 속지 않기 위해 관심 가는 땅을 직접 둘러보고 그 가치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알렉산드라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그에 따르고 싶어 하는 자신감과 신중함의 미덕을 보여준다. “결과에 상관없이”, “악덕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같은 방식의 일상을 반복하며”²⁴⁾ 단순 노동에 매진하는 남동생들과는 달리 알렉산드라는 땅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하며, 새로운 지식을 얻고, 노동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농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간다.

소유적 개인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서부 개척지의 현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시장 논리를 철저히 따르는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농장주로서 자리 잡은 알렉산드라는 형제 중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고 타인과의 탐욕스러운 경쟁에서 승리하는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인물이어야 한다는 도식이 성립한다. 그러나 문제는 알렉산드라가 이러한 설명에 들어맞지 않은 인물이라는 점에 있다.

2. 알렉산드라: 포용과 공감의 공동체를 향하여

주지하듯 로크적 자유주의 전통의 설명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인간관계를 시장 논리에 따르는 것으로 보고, 개인의 소유는 사회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인은 사회와는 분리 독립된 존재이고 사회는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알렉산드라는 노동과 지식으로 시장 논리를 잘 읽어내고 성공적으로 소유를 늘리지만 로크적 의미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의 범주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그녀가 철저히 개

24) Ibid., 30.

인주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마을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그녀의 이해심과 책임감, 그리고 연인인 칼(Carl Linstrum)과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바(Ivar)는 마을 사람들에게 미치광이로 비춰지는 바람에 정신병원에 갇힐 위협에 처한다. 이바는 동물을 잘 이해하며 인간 세상에 유혹이 많다고 여겨 마을 사람들과 떨어져 살고, 자신이 사는 자연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다는 말로 자신의 거처에 만족해 살며 짐승을 사냥하지도 고기를 먹지도 않는 인물이다.²⁵⁾ 그는 인간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려는 마음이 없이 대 자연의 법칙 안에서 자연의 일원으로 살다가 죽기를 바라는 인물인 것이다. 그러나 이바는 공동체가 기대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격리될 위협에 처한다. 그는 자신을 이해하고 보호해 줄 유일한 이웃인 알렉산드라를 찾아가 자신의 처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해야 해요. 나는 신발을 신지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않으며 환상을 보기 때문에 경멸당해요. 유럽에서는 나같이 하나님께서 만겨주신 사람이 많았어요. ... 우리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내버려 두었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신발이나 머리모양을 다르게 하면 그 사람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요. ... 늘 그런 식이죠, 그들은 별난 사람들을 수용할 요량으로 정신병원을 만든 거예요.

The way here is for all to do alike. I am despised because I do not wear shoes, because I do not cut my hair, and because I have visions. At home, in the old country, there were many like me, who had been touched by God, ... We thought nothing of it, and let them alone. But here, if a man is different in his feet or in his head, they put him in the asylum. ... That is the way; they have built the asylum for people who are different.²⁶⁾

25) Ibid., 25.

신발을 신지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않으며 환상을 본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정신 병원에 가두고자 결정할 정도로 이주민 공동체는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참아주지 못한다. 그들의 경제적 자립이 어느새 중산층 이데올로기로 그들을 무장하게 하였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서 어긋나는 것에 대해 무자비한 마녀사냥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알렉산드라는 오히려 이바의 고유한 생활양식을 인정하고 보호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그를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알렉산드라는 이바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 된다고 위로한다. 그가 늙어서 더 이상 혼자서 자신을 부양할 수 없게 되자 알렉산드라는 그를 불러들여 자신의 농장에 거처를 마련하고 가축을 돌보도록 한다. 알렉산드라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해 받지 못하는 소외된 존재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녀는 자신과 이바가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살고 있는 이상,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나 이바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며 자신이 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집 주인인 자신이 이바와 잘 지내고 있는 한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시비할 수 없다는 알렉산드라의 말은 한편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독립성과 사회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사회에 앞선다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을 사람 어느 누구로부터도 이해 받지 못하는 이바를 이해하고 공감을 바탕으로 그를 보호하려 하는 그녀의 태도는 냉정한 개인주의를 넘어선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알렉산드라가 이룬 부는 그녀를 자유롭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풍요함이 나를 이제까지 보호해 주었다”²⁷⁾는 이바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쫓기는 이방인 이바를 위한 바람

26) Ibid., 44.

27) Ibid., 44.

막이가 된다. 애정과 공감으로 사회에서 배척된 자를 대하는 알렉산드라는 이바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금식과 기나긴 속죄로 점철되는 자기 학대를 끝내게 할 수 있었고 그를 괴롭히는 생각들을 언어로써 토해 내도록 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조롱은 그에게 독이 되었지만 알렉산드라의 “공감은 항상 그의 마음을 정확”²⁸⁾하여 자신의 삶을 긍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그녀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소유를 가지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 나눔으로써 공동체를 떠받치는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완수하고 있다.

규범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이웃에 대한 알렉산드라의 공감과 애정 어린 이해는 이웃인 리 부인(Mrs. Lee)에 대한 그녀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자식들이 사들인 새로운 욕조로 대변되는 미국적 규범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리 부인은 자식들 몰래 오래된 욕조에서 목욕한다. 리 부인은 개척시대의 문화를 편하게 여기며 새롭게 부과된 개척 이후 시대의 문화적 기준을 불편해 하지만 자신의 삶의 방식을 새로운 세대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몰래 감추고 지키고자 하는 세대의 모습을 대변한다. 리 부인의 혼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알렉산드라는 리 부인이 자신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지내게 되면 부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하는데²⁹⁾, 이는 새롭게 기준이 된 문화에 편하게 따르지 못하는 이방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며 존중하는 그녀의 관대한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캐더가 단일한 가치를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예화로 가족 간의 이견에 대한 알렉산드라의 대처 방식을 들 수 있다. 알렉산드라는 자신의 독립성과 존엄성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침해 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존엄성이 침해 받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생

28) Ibid., 44.

29) Ibid., 45.

각했다. 알렉산드라는 동생 루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가족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 것이 좋고 오히려 가족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 나쁘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의 실수를 보면서 배워갈 수 있기 때문이다.³⁰⁾ 이는 자신의 것을 보호하고 존중하면서도 타인의 생각과 행동도 억압하지 않고 존중하는 그녀의 관용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개인주의가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나 몰이해로 경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아 존중이 개인의 경계를 넘어 타인의 생각에 대한 존중으로 확장되는 캐더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관용정신은 캐더가 이 작품을 쓰게 된 출발점이기도 하다. 캐더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통해 타문화, 이민자를 대변해 주고 싶은 열망이 이 작품을 쓰게 만들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 이웃들 중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적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보헤미아 등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나는 이 이민자들, 그중에서도 자기 고향 이야기를 자주 해 주던 할머니들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었고 그들에 대해 이웃들에게 설명하고 싶었어요. ... 이것이 나에겐 (글을 쓰고 싶은) 최초의 자극이었죠.

Few of our neighbors were Americans - most of them were Danes, Swedes, Norwegians, and Bohemians. I grew fond of some of these immigrants - particularly the old women, who used to tell me of their home country. I used to think them underrated, and wanted to explain them to their neighbors. ... This was, with me, the initial impulse [to write].³¹⁾

30) Ibid., 43.

31) Sharon O'Brien, "Introduction," *O Pioneers!* By Willa Cather, x에서 재인용.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집안일에 간혀있는 이주민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민자 여성들에 대해 캐더가 느끼는 이와 같은 공감과 연민은 일방적이고 억압적으로 부과되는 사회 규범의 폭력성에 대한 캐더의 거부감을 보여주는 예이다.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빠르게 미국화(Americanization)가 진행되면서 리 부인이나 이바는 말끔함이나 격식차림과 같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국외자들을 비정상적으로 치부하지만 알렉산드라는 그들도 자신의 생활 방식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확신하고 그들이 나름의 생활양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 그녀의 공감과 사랑에 근거한 이웃에 대한 연대 의식은 이혜타산의 논리에 의해 인간관계를 경쟁관계로 놓는 소유적 개인주의의 지평에서 탈피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 전 우주적 관점에서 인간의 삶에 대해 성찰하도록 만든다.

알렉산드라의 지향이 인간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물질에 근거한 인간관계를 초월해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녀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알렉산드라는 자라면서 남성에 대한 감상적인 꿈에 젖어든 적이 없고 남성을 “일하는 동료”³²⁾로만 여기며 살아왔다. 그녀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래된 친구인 칼과 결혼을 약속하며 “친구가 만나 결혼하면 그들은 안전하다”³³⁾고 이야기한다. 오브라이언에 의하면 캐더는 마리(Marie)와 에밀이 가졌던 로맨틱한 연애감정, 즉 성적 욕망에 근거한 남녀 간의 사랑이 위험하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캐더에게 낭만적 남녀관계는 여성을 종속시키고 상대방의 독립된 개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취졌기 때문이다.³⁴⁾ 알렉산드라가 칼에게 우정에 근거한 동반자로서의 남녀관계가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들의 사랑이 상대방의 복종을 요구하는 낭만적인 성적 열정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에 바탕

32) Cather, *O Pioneers!*, 86.

33) *Ibid.*, 125.

34) Sharon O'Brien, *Willa Cather: The Emerging Vo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445.

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두 사람간의 신뢰와 우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서로 독립적인 존재로서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피차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두 사람이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 있을 때는 진정한 우정이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³⁵⁾ 알렉산드라와 칼은 낭만적인 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 열정, 다시 말해 서로에 대한 독점적 소유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알렉산드라가 칼을 대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기대는 장면은 유의할 만하다. 칼은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알렉산드라와 경제적 신분이 다른 가난한 떠돌이이다. 나무 조각가를 직업으로 삼고자 했으나 이미 금속 조각이 유행하게 되어 직업을 제대로 가질 수 없었고 그의 표현에 따르면 그는 “알렉산드라의 옥수수 밭 한 폐기도 살 수 없는 실패한 인생”³⁶⁾이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만 칼은 알렉산드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예민한 감수성의 소유자이다. 그는 알렉산드라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 염려하여 에밀의 죽음을 듣고 단번에 그녀를 만나러 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글로 쓰기에 너무나 섬세하고”, “손에 잡히지도 않을 것 같은 미묘함을 느끼며”,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봄이 오거나 폭풍이 몰아칠 것을 예감 할 줄 아는”³⁷⁾ 섬세함으로 알렉산드라가 땅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인물이다. 이처럼 알렉산드라는 그녀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고 함

35) 이상적인 남녀관계를 우정에 근거한 만남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캐더는 18세기 말 영국의 사상가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울스턴크래프트 역시 『옹호』(*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에서 “사회에서 가장 신성한 결합은 우정”(29)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경운은 동료애와 믿음, 존중에 바탕을 둔 알렉산드라와 칼의 결합을 이성애주의에 대항한 동성애 관계에 더욱 가깝다고 하여 캐더가 인간을 억압하는 성정체성에 항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경운, 「윌라 캐더의 성 정체성」, 『현대영미소설』 14 (2007), 116.

36) Cather, *O Pioneers!*, 56.

37) *Ibid.*, 124.

깨한다는 점에서 물질적 조건에 상관없이 칼을 동반자로 인식하는데 이는 인간관계를 소유관계 측면에서 바라보는 알렉산드라의 남동생들의 관점과 큰 차이를 보인다. 루와 오스카(Oscar)는 칼이 무일푼이고 누나와 결혼하면 가문의 재산을 가져갈 것으로 염려하여 칼을 쫓아내고자 한다. 그들은 칼을 도시의 부랑자이며 알렉산드라의 돈을 탐하고 있고 도움을 받기 위해 알렉산드라에게 찾아온 것으로 여기며 그들의 결합을 반대하지만 알렉산드라는 자신이 그를 돌보고 싶으면 돌볼 뿐 다른 사람이 상관할 문제가 아니라고 맞선다.³⁸⁾ 알렉산드라에게 동반자적 관계는 경제적 독립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며 돈 때문에 친구를 잃어야 한다면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하며 칼에게 자신의 곁에 남을 것을 호소한다.³⁹⁾ 그녀는 땅의 소유가 인간을 “경직되고 무겁게”(hard and heavy)⁴⁰⁾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녀에겐 물질의 축적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그녀에게 물질은 삶을 누리는 기본 조건이 될 뿐 그보다는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며 삶의 지향을 함께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인격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했다.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이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그녀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열 살 때 동부에서 서부로 이사하면서 낯선 땅이 주는 충격과 고립감을 이민자들의 부엌에서 배어 나오는 감정적 지지와 문화적 연계를 통해 극복해 간 캐더는 작품 속 어머니 버그스 부인으로 예시되는 가정 안의 미덕, 즉 음식을 저장하고 요리하며, 정원을 가꾸고, 집안에 질서를 세워 나가는 등의 가정성(domesticity)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요소가 서부의 문화를 보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칭송한다.⁴¹⁾ 캐더는 땅에서 나오는 물질적 이익이 알렉산드라의 독립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38) Ibid., 72.

39) Ibid., 78.

40) Ibid., 56.

41) O'Brien, *Willa Cather*, 74.

것은 사실이지만 소유관계를 넘어선 공동체의 감정적 유대 역시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녀의 공동체에 대한 애정은 여성들 간의 유대뿐만 아니라 작업을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교류로 확대된다. 알렉산드라는 나이와 성별을 따지지 않고 주변 모든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를 즐긴다. 알렉산드라는 스웨덴 출신 가정부들의 웃음소리만으로도 그녀들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소녀들의 고향에서 오는 편지를 들으며 큰 기쁨을 느낀다. 알렉산드라는 가정부들이 얼마나 자신이 주는 급료의 가치를 노동력으로 실현하고 있는가를 재는 이해타산적인 고용인이 아니라 소녀들이 자신에게 주는 정신적 만족만으로 그녀들의 존재이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식사 시간에 자신은 별로 말을 하지 않고 농장 일꾼들이 말을 하도록 격려하며 그들이 아무리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하더라도 항상 주의 깊게 그들의 대화에 귀 기울인다.⁴²⁾ 다른 사람의 생각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면서 그들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알렉산드라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언제나 타인과 교감하고 배울 점을 찾고자 하는 알렉산드라의 태도는 타인에 대한 애정 어린 그녀의 공감능력에 기인하는 것이다.

캐더는 여주인공 알렉산드라를 시장 논리를 따르며 사회와 경쟁하고 공격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인물이 아닌, 경제적으로 자립하면서도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 공감하고 땅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관계’ 속의 인물로 형상화함으로써 소유적 개인주의를 초월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 있다.

서부 개척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오 개척자들!』에서, 캐더는 자신의 상상력, 예민한 직관, 그리고 실용적 지식을 통합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랑과 공감을 바탕으로 공동체 사람들의 자아실현을 돕는 알렉산드라를 통해 새로운 여성상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알렉산드라는 전통적 의미의 남성성이나 여성성의 틀로 규정할 수 없는 보편적 자유인의

42) Cather, *O Pioneers!*, 42.

삶을 보여주면서 진취적이고 자유로우며 관계 지향적인 새로운 미국 여성의 정체성의 구현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찍이 『주홍글자』(*The Scarlet Letter*)에서 헤스터 프린이 ‘여성성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성 사회체제가 붕괴되고, 이어 남자들의 습관이 바뀔과 함께,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여성자신이 그러한 불평등을 고치기 위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⁴³⁾고 이야기함으로써 후대 여성들에게 자기 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던 것에 대한 캐더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토지 사유와 세습에 대한 문제 제기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주인공 알렉산드라는 실용적 지식과 상상력, 그리고 이웃과 땅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농장을 일구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향유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녀가 개인의 이익과 시장의 논리에만 집착하는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땅을 이익을 거두기 위한 대상으로서 간주하기 이전에 땅을 사랑하고 땅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자신을 잘 드러낸, “땅에 속한 사람”⁴⁴⁾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알렉산드라는 땅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했던 아버지 존이나 땅을 이해하고 관조하기 보다는 이익을 내기 위한 원천으로만 여기는 루, 오스카와는 차이를 보인다. 더 나아가 그녀는 『타락한 부인』(*Lost Lady*)의 투기업자 아이비 피터스(Ivy Peters)가 그랬듯이 노동력은 들이지 않고 땅을 매매함으로써 이익을 내는 데만 골몰하는 사악한 목적에 경도된 사람들과도 다르다. 오히려 그녀는 『월든』의 「콩밭」(“The Bean Field”) 장에서 농업을 그 자체

43) Nathaniel Hawthorne, *The Scarlet Letter* (New York: Norton, 2005), 108.

44) Cather, *O Pioneers!*, 124.

로 성스러운 예술(art)로 생각하지 않고 땅을 “재화”로만 생각한 사람들을 비판한 소로우(H. D. Thoreau)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캐더나 소로우는 모두 경제적 이익 이전에 인간과 대지의 친밀한 관계 맺음이 진정한 소유관계의 근본이라고 주장하여 인간이 대지를 소유한다는 것에 대해 새롭게 정의 내리고 있다.

알렉산드라는 대지에 폭력적인 힘을 행사함으로써가 아니라 “사랑과 염원”⁴⁵⁾을 담아 자연의 힘과 아름다움에 순종함으로써 자연을 길들이고 동시에 자연과 하나가 된다. 알렉산드라는 자연의 소리가 세상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다고 느끼며 자신이 세상의 미물들과 하나의 질서 속에 함께 호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의 위대한 법칙 안에 겸손하게 자신을 맡기는 알렉산드라는 그 안에서 안도감을 느끼며 새 힘을 얻는다.⁴⁶⁾ 땅의 수확을 생각하며 미래를 보는 그녀는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통해 우주와 자연의 위대한 질서 속에 자신이 하나가 됨을 깨닫는 것이다. 이처럼 그녀의 공감과 연대 의식의 대상은 인류를 넘어 자연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위대한 질서에 편입해야 한다는 알렉산드라의 생각은 필연적으로 땅을 개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에 대한 회의로 이어진다. 알렉산드라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땅을 소유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연의 유장한 역사 속에서 순간의 사건일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단지 자연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자신을 그 위대한 근원 속에 녹여내고 누릴 수 사람만이 잠시나마 자연을 소유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땅의 소유에 대한 그녀의 성찰은 칼과의 다음 대화를 통해 드러난다.

45) Ibid., 34.

46) Ibid., 36.

땅은 미래의 것이야. 우리는 (잠깐 여기에) 왔다가 가지, 하지만 땅은 항상 여기에 있어. 땅을 사랑하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땅을 소유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The land belongs to the future, ... We come and go, but the land is always here. And the people who love it and understand it are the people who owns it - for a little while.⁴⁷⁾

이것이 수십 년 동안 대지에 애정 어린 노력을 쏟아부어온 알렉산드라가 땅의 소유권에 대해 내리는 결론이다. 그녀에게 땅은 인간의 사사로운 소유를 벗어난 영역에 있다. 농장 경영을 잘해냈다고 칭찬하는 칼에게 알렉산드라는 자신들이 한 것은 별로 없으며 땅 스스로가 그것을 해냈다고 말한다. “땅은 잠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풍성히 생산하여”(It woke up out of its sleep and stretched itself, and it was so big, so rich),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되었다”(we suddenly found we were rich, just from sitting still)⁴⁸⁾는 알렉산드라의 말은 자연이 인간의 의지를 관철시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캐더의 생각을 보여준다. 이처럼 자연이 인간적 소유와 경영 밖의 존재로서 인간은 자연 앞에서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라는 캐더의 생각은, 인간에 앞서 자연이 존재했으며 인간은 모두 자연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누릴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영원한 상속권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토지 공유제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⁴⁹⁾

47) Ibid., 125.

48) Ibid., 53.

49) 캐더의 글은 토지소유에 관한 입장에서 헨리 조지와 입장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프러스와 콜킨(Frus & Corkin) 역시 캐더의 글은 전통적 문학의 범위에서 나아가서 읽을 때 헨리 조지, 이그나티우스 도넬리(Ignatius Donnelly), 프랭크 노리스(Frank Norris), 싱클레어 루이스(Sinclair Lewis) 등의 작가와 연관하여 가르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Phyllis Frus & Stanly Corkin, “Willa Cather’s ‘Pioneer’ Novels and (Not New, Not Old) Historical Reading,” *College Literature* 26 (1999), 40.

헨리 조지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이를 후세에 배타적으로 세습하는 것을 반대하여 ‘인간은 근대적 의미의 절대적 소유 또는 상속 대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다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자유주의적 전통의 소유 개념을 부정하고 있다. 그는 오직 자본과 노동력을 동원하여 땅에서 생산한 수확물만을 정당한 소득으로 소유할 수 있을 뿐이고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은 토지의 단순소유에서 오는 이득, 즉 지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자연을 사용하고 향유할 권리, 자연에 노력을 쏟을 권리, 자연으로부터 대가를 얻어 소유할 권리 등을 명백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개인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⁵⁰⁾ 인간이 자연에 대해 무제한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배타적인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헨리 조지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알렉산드라의 소유에 대한 생각과 비슷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자연은 토지의 무기한소유권(fee simple)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토지의 배타적 소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힘은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합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기들의 평등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후세대의 권리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 인간은 지구에 임시로 세 들어 사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 후세대의 세 들어 살 권리를 우리가 결정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지구를 만들기라도 했던 말인가? 확실한 토지 문서가 아무리 많고 토지소유를 아무리 오래 해 왔더라도 자연적 정의는 타인의 평등한 권리를 부정하는 어떤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⁵¹⁾

인간이 토지를 소유하고 이를 자신의 후세에 까지 세습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헨리 조지는 오직 인간의 노동력으로 뿌리고 거두어들

50) 김윤상·박창수, 『진보와 빈곤 땅은 누구의 것인가』, 172-73.

51) Henry George, *Progress and Poverty*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1970). 김윤상 역, 『진보와 빈곤』(서울: 무실, 1988), 179-80.

인 결과물만이 정당한 소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인정하는 풍요의 원천은 인간의 노동하여 얻은 수확물일 뿐이다. 그는 심신의 노력을 통해 부의 총량을 증가시키거나 인간의 지식을 늘리거나 인간의 삶을 더 높이고 더 충실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나 넓은 의미의 생산자, 일하는 자, 노동자라고 평가하지만 사람의 노력과 무관하게 하늘에서 내린 토지는 사유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형평성을 달성하자고 주장한다.⁵²⁾ 그는 토지가 신이 인류 공동에게 허락한 공동의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산업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의 독점이나 부의 편중과 같은 문제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노동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자연을 주셨다. 그는 자연을 한사람, 일부 사람들, 혹은 한 세대에만 준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주셨다. 자연은 신이 모든 인류에게 허락한 선물이자 포상이다. 그러나 문명국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소수의 사람들이 자연을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우기며 풍요를 누린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의 저장창고에서 노동을 하거나 신이 허락한 풍요를 끌어올 수 있는 법적 권리조차 가지지 못한다.

What God gives are the natural elements that are indispensable to labor. He gives them, not to one, not to some, not to one generation, but to all. They are His gifts, His bounty to the whole human race. And yet in all our civilized countries what do we see? That a few people have appropriated these bounties, claiming them as theirs alone, while the great majority have no legal right to apply their labor to the reservoirs of Nature and draw from the Creator's bounty.⁵³⁾

52) Ibid., 109.

53) Henry George, "Thy Kingdom Come." 1889. Accessed September 10, 2011, <http://www.grundskyld.dk/1-Kingdom.html>.

헨리 조지의 이와 같은 토지관은 종교적 입장에 상관없이 인류가 최초에 지구상에 출현할 무렵 어느 누구도 토지에 대한 배타적이고 생애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과 우리의 삶의 조건이 공동체와의 유기적인 관계, 더 나아가 지구라는 공동의 환경에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부인할 수 없는 원칙이 된다.

『오 개척자들!』에서 알렉산드라 역시 경외의 눈으로 대지의 아름다움과 풍만함 그리고 영광스러움을 헤아리고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노동력을 바침으로써 자연이 주는 풍부한 선물을 누리지만 당시 미국 사회에 만연하던 토지의 배타적인 소유와 세습에 대해 회의하는 태도를 보인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려야 할 땅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고 먼저 땅을 점유했다고 해서 그 땅에 대해 영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헨리 조지의 주장은 땅은 미래에 속하는 것이며 인간은 그것을 영구히 소유할 수 없다는 캐더의 생각을 경제학적으로 더욱 정교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경쟁과 탐욕을 넘어 공존과 관용으로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알렉산드라는 자신이 지극히 사랑해 마지않던 동생 에밀을 죽인 프랭크(Frank)를 만나 그를 용서한다. 알렉산드라는 감옥에 갇힌 프랭크를 면회하면서 “이제 에밀을 도울 수 없으니 프랭크를 돕겠다”⁵⁴⁾고 말하는데 결국 프랭크와 자신은 인간의 무분별한 욕망이라는 똑같은 폭풍우에 의해 난파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알렉산드라의 모습을 통해 독자는 인간의 보편적 불완전성을 인정함으로써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물고 겸손과 관용으로 타인의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인간

54) Cather, *O Pioneers!*, 121.

의 숭고한 가능성을 목격하게 된다. 개인의 독립성과 배타성을 뛰어넘어 인간의 보편적 허물과 한계를 인식하고 용서로써 자아의 경계를 확장하는 알렉산드라의 자세는 앞서 말한 땅의 배타적 소유에 대한 회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자신의 독립성과 자유를 누리면서도 이에서 나아가 타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사랑의 삶을 실천한 알렉산드라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탐욕스러운 인간의 집합체로서의 인간사회가 아닌, 자연 속에서 노동을 통해 수확을 누리며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삶을 지향한 캐더의 꿈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은 자연의 거대한 순환에 잠시 머무는 미미한 존재이며 자연을 진정으로 누릴 줄 아는 사람만이 잠깐이나마 자연을 소유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보이는 알렉산드라는 인간을 더 이상 소유적 개인주의의 굴레, 즉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며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존재로 간주하지 않고 해방되어 독립과 관용의 삶을 실천하고 개인의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의 삶도 해방으로 이끄는, 나아가 자연과의 경건한 공존을 가능케 하는 인류보편의 개척자를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Works Cited

- 김윤상·박창수. 『진보와 빈곤 땅은 누구의 것인가』. 서울: 살림, 2007.
- 박경운. 「윌라 캐더의 성 정체성」. 『현대영미소설』. 14 (2007): 99-123.
- 신문수. 「서론: 자연과 미국 문화」. 『미국의 자연관 변천과 생태의식』. 신문수 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2-18.
- Cameron, Scott Cannon. “Owning America: American Literature, Ecocriticism, and the Attempt to Redefine Land Ownership.” PhD diss., Boston University, 2011.
- Cather, Willa. *O Pioneers!*. New York: Norton, 2008.
- _____. “The Demands of Art.” *The Kingdom of Art: Willa Cather’s First Principles and Critical Statements 1893-1896*. Ed. Bernice Slote.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66: 408-09.
- _____. Preface. *The Country of the Pointed Firs*. By Sarah Orne Jewett. New York: Doubleday, 1927. N. pag.
- _____. *Willa Cather on Writing*.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8.
- _____. “Willa Cather Talks of Work.” Bernice Slote, 446-49.
- Cooper, James Fenimore. *The American Democrat*. New York: Vintage Books, 1956.
- Frus, Phyllis & Corkin, Stanly. “Willa Cather’s ‘Pioneer’ Novels and (Not New, Not Old) Historical Reading,” *College Literature* 26 (1999): 36-58.
- George, Henry. *Progress and Poverty*.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1970. 김윤상 역. 『진보와 빈곤』. 서울: 무실, 1988.
- _____. “Thy Kingdom Come.” 1889. Accessed September 10, 2011, <http://www.grundskyld.dk/1-Kingdom.html>.
- Hawthorne, Nathaniel. *The Scarlet Letter*. New York: Norton, 2005.
- Hofstadter, Richard. *The Age of Reform*. New York: Vintage, 1955.
- Lee, Hermione. *Willa Cather: Double Lives*. New York: Vintage Books, 1991.
- Lewis, Edith. *Willa Cather Living: a Personal Record*.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00.

- Macpherson, C. B.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Hobbes to Lock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황경식, 강유원 공역. 『홉스와 로크의 사회철학』. 서울: 박영사, 1990.
- Michaels, Walter Benn. *The Gold Standard and the Logic of Naturalism: American Literature at the Turn of the Centu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 Mullins, Maire. “Alexandra’s Dreams: “The Mightiest of All Lovers” in Willa Cather’s ‘*O Pioneers!*.” *Great Plains Quarterly* 25 (2005): 147-59.
- O'Brien, Sharon. *Willa Cather: The Emerging Vo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 _____. Introduction. *O Pioneers!*. By Willa Cather, ix-xxiii.
- Radin, Margaret Jane. *Reinterpreting Proper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 Rosowski, Susan J. ed. *Willa Cather's Ecological Imaginatio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03.
- Roth, Mitchel. *Issues of Westward Expansion*. West Port: Greenwood Press, 2002.
- Ryan, Melissa. “The Enclosure of American: Civilization and Confinement in Willa Cather’s *O Pioneers!*.” *American Literature* 75 (2003): 275-303.
- Sassabre, Ticien Marie. “Reimagining Property: Ownership and Identity in American Fiction, 1880-1940.” PhD diss., Stanford University, 2001.
- Schlatter, Richard. *Private Property: The History of an Idea*.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51.
- Slote, Bernice. *The Kingdom of Art*.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66.
- Smith-Rosenberg, Carroll. “Puberty to Menopause: The Cycle of Femininity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Clio's Consciousness Raised*. Ed. Mary Hartman and Lois Banner. New York: Harper-Torchbooks, 1974. 23-37.
- Stout, Janice P. *Willa Cather: The Writer and Her World*. Charlottesvill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2000.

- Thoreau, Henry David. *Walden and Resistance to Civil Government*. New York: Norton, 1992.
- Wollstonecraft, Mary.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96.
- Woodress, James. *Willa Cather: a Literary Life*.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7.
- “Massachusetts Bill of Rights.” 1780. July 10, 2011, <http://www.pixi.com/~kingdom/mass1780.html>.
- “The 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1776. July 19, 2011, <http://www.archives.gov/exhibits/charters/>.

- 논문 투고일자: 2011. 9. 29
- 심사(수정)일자: 2011. 10. 11
- 게재 확정일자: 2011. 11. 3

Abstract

**Women's Property Rights
and the Problem of Identity in *O Pioneers!***

Meeya Hahn

(Seoul National University)

According to the possessive individualism which strongly influenced the ideology of the American Revolution and Westward Expansion, property is an inalienable human right which society is made to protect. From this point of view, human relationship is a competitive and aggressive one. In *O Pioneers!*, Cather depicts a woman pioneer named Alexandra who grows to be a successful land owner through her intelligence, hard labour and creative ideas. Her proprietorship made it possible for her to lead a free, independent and strong way of life, which differentiate her from the Victorian ideal of women, 'an angel in the house'. What makes her an important heroine of American literary history is that she overcomes selfish boundary of individualism which defines that individual enters relations only for interests and human society is consisted of series of market relations. She succeeds in her role as the supporter of the family. Her sympathetic understanding of neighborhood enables her to support who are in need of help. She takes care of people who are craving for love and economic supports. In the end, her sympathy toward the community leads her to think that the earth is the common property of humanity as Henry George insisted. She concludes that it is not fair for a person to own certain land eternally as a private property. Cather says that the land could be owned only for an instant by person who understand and work on it and that it could never be under the exclusive ownership of a single person. Alexandra shows Cather's ideal pioneer who liberates whole community by her sympathetic understanding of others and sharing of what she has.

Key Words

소유적 개인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 새로운 여성 정체성(New women identity), 공동체(Community), 공감적 이해(Sympathetic understanding), 토지 공유(Earth as a common property)